

##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6

# “우리도 함께 뛰다”

##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 행운상 추첨

# 세상에 빛을... 꿈과 희망의 레이스

### ■ 한전 광주전남본부

‘빛과 사랑을 전하는 꿈의 레이스’ 제46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형철)가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 전하는 꿈과 희망의 레이스를 펼쳐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마라톤 동호회 ‘뛰아모(뛰다보니 아름다운 사람들)’는 이번 대회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 좋은 전기와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마음가짐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 시민 만족 서비스 공급

지난 2001년 출범한 ‘뛰아모’는 제1회부터 팀 이름답게 달리기 실력과 규모도 수준급이다. 처음 ‘뛰아모’가 달을 올릴 때만해도 회원수가 20명 남짓이었지만 지금은 본부 회원만 70명, 사업소를 포함해 200여명이 넘는 한전 광주전남본부의 대표적인 동호회가 됐다.

지난해 대회 때는 100여명이 넘는 회원과 가족들이 참여해 흥겨운 정을 나누었고 이번 대회에도 사업소 참여 직원을 포함해 20여명 회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비록 동호회 선수들이지만 실력만큼은 수준급이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마라톤 동호회 ‘뛰아모’ 회원들이 3·1절 마라톤을 통해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 전하겠다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팀의 영원한 만행으로 6년 전 현역에서 퇴직한 박상진(65)씨는 하프를 1시간 37분대에 달리는 건각. 지금도 30여명의 회원들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광주 중외공원에서 6시30분부터 8시까지 훈련을 하며 건강을 다지고 있다.

회원들은 주말에는 광주천과 무등경기장 육상트랙에서 인터벌 훈련을 하며 달리기 실력을 키우고 있다. 훈련시 구호는 ‘광주전남본부! 아자, 아자, 해내자, 갯!’이다. 이들은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면서 함께 뛰

는 화합의 마음가짐을 다지고 있다. ‘뛰아모’는 이웃에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레이스도 준비하고 있다. 회원 1명당 1km를 뛸 때마다 100원씩 적립해 관내 불우시설에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 1명당 1km 사랑기금 적립

양대동(55) 뛰아모 회장은 “새봄을 여는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를 선조들의 독립운동정신을 되새기고 겨울동안 다졌던 동

계훈련 성과를 평가하면서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 있다”며 “뛰아모 회원들에게 3·1절 마라톤대회 출전은 새봄을 열고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 전하는 한전인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 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또 “열심히 함께 뛰면서 화합을 다지기 위해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만족하게 공급한다는 다짐의 구호 ‘광주전남본부! 아자, 아자, 해내자, 갯!’을 외치며 건강할 질주를 펼쳐겠다”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달 1일 열리는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행운상 추첨이 22일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김우성 문화홍보국장(가운데)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조광현(왼쪽) 경사와 김영식 경장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추첨을 하고 있다. 행운상은 올해로 46번째 대회를 맞이하는 기념으로 46명에게 돌아갔다. 당첨지는 3월1일 대회현장과 3·1절전국마라톤 홈페이지(http://marathon.kwangju.co.kr)를 통해 발표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핵심 BK 日서 뜰까

## 병헌 컨디션 조율... “올해 제대로 던져보겠다”

3년간의 공백을 깨고 일본프로야구 라쿠텐 골든이글스에서 재기에 도전하는 잠수함 투수 김병헌(32·사진)이 “제대로 된 공을 던져보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22일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의 연습경기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현 오나리의 아카마구장을 찾은 김병헌은 “내 마음에 드는 공을 던지고자 노력 중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1999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데뷔, 2007년 플로리다 말린스에서 마지막으로 던질 때까지 통산 86세이브(54승6패)를 거뒀던 김병헌은 이후 3년간 마땅한 팀을 찾지 못해 운동을 쉬었다.

지난해에는 미국프로야구에서도 하위 리그인 독립리그에서 활약하기도 했던 김병헌은 일본으로 방향을 틀었고 작년 11월 라쿠텐 구단에서 두 차례 테스트를 거쳤다.

이후 지난달 라쿠텐과 1년간 3300만엔에 계약하고 일본 무대 데뷔를 앞두고 있다. 김병헌은 “지난 3년간 놀면서 정답을 얻지 못했지만 스프링캠프에서 3주 연습하면



서 실마리를 찾았다. 주위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다”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김병헌은 이날 볼펜에서 100개를 던지며 컨디션을 조율했다. 100개를 연속으로 던지지 않고 공 1개를 던진 뒤 잠깐 자세를 교정하고 투수코치에게 조언을 얻는 식으로 30분간 땀을 흘렸다.

김병헌은 23일 삼성과의 평가전에서 이닝을 던질 예정이었으나 이날 예상외로 볼펜에서 많이 던져 다른 날을 골라 일본 팀을 상대로 던지기로 계획을 바꿨다. /연합뉴스

# 이승엽, 친정 요미우리 상대 3점포

## 평가전서 4타수 2안타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 소속의 이승엽(35·사진)이 ‘친정’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상대로 초대형 3점 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승엽은 22일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의 셀룰러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미우리와의 평가전에서 5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 3회 우측 스탠드에 꽂히는 시원한 3점포를 터뜨리는 등 4타수 2안타를 때렸다.

19일부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를 시작으로 다른 팀과 연습경기를 치른 이승엽은 경기 만에 첫 홈런포를 가동함으로써 30홈런과 100타점을 향해 한차기 시동을 걸었다.

게다가 자신을 방출한 요미우리를 상대로 분노가 느껴질 만한 대포를 작렬해 제감도 배가 됐다.

이승엽은 19일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정태환 2루타를 때렸고 21일 야쿠르트와의 일전에서 5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 3회 경기에서 6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이날 첫 타석에서 왼손투수 우쓰미 데쓰야의 볼을 힘껏 잡아당겼지만 우익수 뜬공으로 잡힌 이승엽은 3회 1루와 3루에 주자를 두고 들어선 두 번째 타석에서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오른손 투수 도노 슌의 낮은 직구를 그대로 퍼올렸고 때마침 바람까지 곁돌려 우측 펜스를 훌쩍 넘기는 대형 3점포를 쏘아 올렸다.

이승엽은 이후에도 오치 다이스케를 제물로 좌익 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리는 등 안타 2개를 모두 장타로 연결해 오카다 아키노부 감독을 기쁘게 했다.

이승엽은 “볼을 따라가서 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때리는 연습에 집중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5년간 추억을 함께했던 좋은 팀이나 지금부터는 적”이라며 정규 시즌에서 자신을 내친 요미우리와의 경기에서도 한 방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줌마들의 질주’

### ■ 유니베라 금남로 영업국

“마라톤으로 만든 건강으로 사회봉사에 앞장서겠습니다.”

(주)유니베라의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영업국 직원들이 제46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희망찬 각오를 외쳤다. 참여인원 전원이 30~60대의 ‘아줌마’인 (주)유니베라 금남로 영업국 직원들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마라톤에 참가하는 직원은 있었지만 올해처럼 전원이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다.

### 건강 챙기며 사회봉사 앞장

직원들은 운동 인기종목 중 ‘대세’로 자리 잡은 마라톤에 모두 참가해 건강도 챙기고 회사 알리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한 뜻을 모았다.

(주)유니베라는 알로에를 주력품목으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에 판매하는 웰니스(Wellness) 회사다. 이 회사의 알로에는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에 7년 연속 선정돼 이미 소비자에게도 유명하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전파하겠다”는 회사의 모토처럼 사람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3·1절 마라톤에 출전하는 (주)유니베라 금남로 영업국 직원들이 마라톤으로 만든 건강으로 사회봉사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자부심을 가진 금남로 영업국 직원들은 이번 마라톤으로 먼저 직원들의 건강부터 다지겠다는 결의다.

김주자(49) 팀장은 “그동안 마라톤 대회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며 건강은 물론, 재미를 느껴왔었다”면서 “이번 대회는 직원들이 운동 초보자보다 5km 레이스부터 시작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실력을 높여 점차 더 긴 코스를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선(38) 사무국 실장은 “내근 업무만 하다 보니 운동을 많이 못했지만 마라톤이 좋겠다”고 말했다.

### 소년소녀가장에 장학금 지원

돈을 통해 운동도 하고, 체력을 만들어 업무에도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금남로 영업국 직원들은 마라톤 참가가 건강은 물론 건강한 정신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영업활동 외에 마라톤 참가와 같은 사회활동에도 꾸준히 참가하며 ‘봉사영업망’을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옥덕(60) 대표는 (사)평화아카데미 봉사회장을 겸임하며 매년 소외된 이웃과 소년소녀가장 등에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직원들도 2년 전부터 매달 한 차례씩 장애인 시설과 양로원을 찾아 목욕과 빨래 등을 도맡는 등 봉사하는 삶에 주력해 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KIA 부상병 김원섭·나지완·안치홍 귀국길

KIA 타이거즈의 ‘부상병’ 김원섭, 나지완, 안치홍이 스프링캠프에서 철수한다.

스프링캠프가 실전 경기 체제로 전환되면서 부상으로 재활중인 외야수 김원섭·나지완 내야수 안치홍이 23일 귀국길에 오른다.

김원섭은 피로 누적으로 양쪽 허벅지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나지완은 우측 손바닥 통증을 호소하며 차질을 빚어왔다.

안치홍은 지난해 9월 좌측 어깨관절 연골 봉합수술을 받은 뒤 재활훈련을 하고 있다.

KIA가 24일부터 가고시마로 자리를 옮겨 연습경기 위주로 훈련을 진행하게 되면서 경기 참여가 어려운 세 선수의 캠프 철수가 결정됐다.

한편 앞선 20일 허리통증으로 캠프에서 귀국했던 최희섭은 정밀검진 결과 요추염좌 진단을 받고 재활에 들어갔다. 구단측은 “최희섭이 2주 정도 치료를 받은 후 정상적으로 훈련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BO 제7기 대학생 객원마케터 모집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11년 제7기 KBO 대학생 객원마케터를 모집한다.

2005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KBO 대학생 객원마케터는 프로야구 관망 및 각종 행사 참여, 미션 수행 등을 경험하게 되며 프로야구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KBO 대학생 객원마케터에게는 페넨트레이스 기간 중 국내 전 구장을 출입할 수 있는 AD카드와 아이디어 제안과 과제수행 등을 위한 활동비가 지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그리고 올스타전과 골든글러브 시상식 등 KBO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2011년 대학생 객원마케터는 내달 4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최종 8명을 선발하게 된다.

2011년 대학생 객원마케터는 내달 4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최종 8명을 선발하게 된다.